

No.42

Japan Weekly Digest

2010. 7. 5 ~ 7. 11

□ 금주의 이슈

- 대기업 해외진출을 위해 인프라사업 재편 가속화
- 이토추, 美國 리튬개발회사의 아시아판매권 획득
- 도쿄都, 한국기업과 하수도기술 라이선스 계약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- 참의원선거, 민주당 참패
- 경상수지, 전년 동기 대비 8.1% 감소
- 경제동우회 회장 “부가세 증세 필요성” 강조

□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

- 경산성, 해외콘텐츠 인재 지원책 발표
- 해외 물(水)인프라 수출을 위한 협의회 개최
- 파나소닉, “가정용 충전장치” 판매계획 발표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- 기업을 위협하는 4가지 리스크
-주간 동양경제 (2010.7.10)



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□ 금주의 이슈

- 日기업 해외진출을 위해 인프라사업 재편 가속화
 - 닛케이는 6일, 히타치, 미쓰비시 등의 수력발전사업 통합사례를 소개하면서 일본 기업이 인프라사업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재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보도
 - 일본 기업은 규모가 작은 국내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경쟁하는 구조는 해외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, **국내 소모전에서 빨리 탈피하여, 사업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해외에서 성공하는 열쇠**라고 주장
 - 또 일본 기업이 통합에 성공했다고 해도 인프라 강국인 프랑스에 비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**통합과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승부해야 한다**고 보도
- 이토추, 美國 리튬개발회사의 아시아판매권 획득
 - 이토추는 전기자동차(EV)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전지 재료를 확보하기 위해 美國의 자원개발회사인 Simbol Mining에 자본 참여를 했다고 발표
 - 생산이 본격화되는 5년 후에는 일본전체 수요의 약 30%에 해당하는 연간 1만 6,000톤의 리튬이 생산될 전망
 - 이토추는 Simbol사가 생산하는 리튬 화합물의 한중일 3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독점 판매권도 확보
- 도쿄都, 한국기업과 하수도기술 라이선스 계약 체결
 - 물(水) 비즈니스로 해외진출을 목표하고 있는 도쿄都는 하수도의 쓰레기를 제거하는 「수면(水面)제어장치」의 라이선스 계약을 한국의 환경컨설팅회사인 N4TEC DS사와 체결했다고 발표
 - 수면제어장치의 라이선스 계약은 6월 독일 하수도설비 회사와 체결하였으며, 한국은 두 번째 국가임(도쿄都에 지불되는 기술사용료는 비공개)
 - 2002년에 도쿄都, 도쿄都하수도서비스, 니혼고에이 등 3사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특허를 보유. 도쿄都는 「계속해서 하수도기술을 해외 수출하겠다」고 발표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○ 참의원 선거 결과, 민주당 참패

- 11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민당에 참패하면서 과반석 의석인 60은 물론 간 나오토 총리가 목표로 제시한 '54석+α' 확보 하는데 실패
- 참의원 정원 242석의 절반인 121석(지역구 73석, 비례대표 48석)을 물갈이한 이날 선거 개표 결과, 민주당 44석, 자민당 51석, 민나노당 10석, 공명당 9석 차지
- 이번 선거의 참패 요인은 소비세 인상을 쟁점화함으로써 지지율 추락을 불러 연립여당은 참의원 과반의석에 크게 못 미치는 110석에 그치게 되어 현 지도부와 최대 실세인 오자와 前간사장간의 내분과 권력투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짐

○ 경상수지, 전년 동기 대비 8.1% 감소

- 재무성은 8일, 5월 국제수지상황(속보치)을 발표. 경상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8.1%가 감소한 1조 2,053억엔 흑자를 실현
-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 흑자는 0.6% 감소한 3,910억엔
*수출: 33.8% 증가한 5조 276억엔, 수입: 37.8% 증가한 4조 6366억엔
- 여행, 수송 등 서비스 수지는 438억엔 적자.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이자나 배당 등 소득수지는 21.1% 감소한 9287억엔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그 폭은 대폭 감소
*8일 내각부에서 발표한 5월 기계수주도 전월대비 9.1% 감소한 6929억엔

○ 경제동우회 사쿠라이회장 “부가세 증세 필요성” 강조

- 경제동우회 사쿠라이회장은 6일, 기자회견에서 이번 참의원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부가세 인상에 대해 「강한 경제, 재정, 사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가세 인상은 피할 수 없다. 부가세 인상을 통해 국민 생활이 얼마나 좋아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」 측면이 있다고 민주당의 對 국민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언급
- 재정건전화와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「불필요한 세출 삭감과 새로운 산업을 창조 하고 환경관련 기술이나 민관 일체가 된 인프라 수출 등 적절한 투자를 하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」고 강조

□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

○ 경산성, 해외콘텐츠 인재 지원책 발표

- 경제산업성은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 일본의 콘텐츠산업을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미국의 필름스쿨(대학원)에 대한 유학지원을 시작한다고 발표
- 법무, 회계, 자금조달 등 할리우드영화 제작기법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일본문화를 해외에서 사업화하는 프로듀서를 육성하는 것이 목적
- 콜롬비아대, UCLA 등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프로듀서 양성코스 입학 지원. 지원내용은 선발된 학생의 수업료 상당액을 지원

*경산성은 2020년까지 콘텐츠산업의 수출을 3배가 늘어난 2조 3,000억엔을 달성한다는 계획

○ 해외 물(水) 인프라 수출을 위한 협의회 개최

- 국토교통성, 경제산업성 등은 6일, 해외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하수도, 해수담수화 플랜트 등 물 분야의 사회기반정비를 위해 민관이 정보교환을 하는 「해외 물 인프라 PPP협의회」를 개최했다고 발표
- 관련기업, 자치단체 등이 일본의 우수한 물 처리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이 목적
- 협의회에는 물 처리막 기술을 가진 도레이, 상하수도 관리기술을 가진 메타워터, 종합건설업인 오오바야시구미와 미츠이스미토모은행, 미즈호은행 등 물 비즈니스 관련 기업 140사가 참여
- 해외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사업을 추진할 예정

○ 파나소닉, “가정용 충전장치” 시스템 판매계획 발표

- 파나소닉은 8일, 동사의 리튬이온충전시스템과 산요전기의 태양전지를 조합시킨 “가정용 충전장치” 시스템을 2011년에 판매할 방침이라고 발표
- 오사카 스미노에 공장에서 실용화를 위한 실험을 6월부터 시작했다고 발표
- 충전장치는 일반 가정에서 하루에 소비하는 전력의 50%정도를 조달할 수 있다고 강조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日기업을 위협하는 4가지 리스크

주간 동양경제 특집 (2010.7.10)

- '10년 일본기업의 실적은 세계경제 회복으로 2분기 연속 대폭 増益이 예상됨
- 그러나 연속 増益을 막는 리스크 요인도 많이 존재 (①엔고 ②원재료 코스트 상승 ③중국경제의 성장속도 침체 ④에코 소비 자극정책 축소 등)

□ 제1의 리스크: 엔고·유로 위기

- 유럽의 재정위기 영향으로 1유로=100엔 하회할 가능성. 미국의 경기둔화에 따라 엔고·달러 하락이 진행
- 그리스발 유럽의 재정위기 영향으로 급격한 엔고·유로의 하락이 진행
- 이 영향으로 일본 수출기업의 수익 악화, 수출 경쟁력 저하, 유럽에 대한 수출이 감소
- *다이나증권에 의하면 5엔 엔고로 3.8% 경상수지 감소 예측

□ 제2의 리스크: 원유, 구리, 철광석 등 원재료 코스트 상승

-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은 유로위기로 안정되어 있으나 향후 중국의 자원수요 확대에 의해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
- 철광석 가격에 대해서는 중국의 확대하는 수요와 대형 자원회사의 과점 상황이 상승 압력을 부추기고 있음
- 자원가격의 상승에 의한 영향은 제품에 대한 가격전가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실적을 압박

□ 제3의 리스크: 중국경제의 성장속도 저하

- 이미 경기회복 속도가 저하되고 있으며 급격한 긴축대책으로 인해 거품경제 붕괴, 경기 둔화가 될 가능성
- 무역흑자는 08년 이후, 감소 경향에 있음(10년 1Q: 전년 동기 대비 59.6% 감소)
- 거품경제 억제 대책: (1)은행대출 억제 강화 (2)주택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금리 인상

□ 제4의 리스크: 정책·규제의 영향

- 국내에서는 에코 관련 소비자극 대책이 일단락됨에 따라 판매 감소가 예상
- '09.4월 에코 카 보조제도, 5월 가전 에코 포인트 등은 실적회복에 큰 영향을 주었으나, 에코 관련 제도는 2010년 연말에 종료. 이후 상당한 반동이 예상
- 재정재건과 금융규제개혁이 일본기업에 간접적으로 악영향
- 긴축재정과 금융규제강화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기업수익을 압박할 가능성

【일본 관련 주요 보고서】

□ 『성장전략으로서의 아시아』 종합연구개발기구, 7월5일

- 향후에도 자동차나 전자제품 산업은 일본 경제발전에 중요한 산업. 그러나 이러한 산업의 과도한 수출 의존형 산업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안 됨. 향후 인프라나 환경관련 등 일본이 경쟁력을 가진 산업을 아시아에서 전개해 가는 것이 일본의 성장 열쇠가 됨

*출처: <http://www.nira.or.jp/pdf/review47.pdf>

□ 『에코 포인트의 공죄』 이토추상사, 7월7일

- 에코 포인트 제도는 일본경제에 플러스의 효과를 초래했음. 그러나 문제는 에코 포인트 보조금제도가 종료되면, 판매 감소, GDP에 대한 기여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 됨. 경제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에코 포인트는 정말 바람직한 정책이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

*출처: http://www.itochu.co.jp/ja/business/economic_monitor/pdf/2010/20100706_2010-91_J_Eco.pdf

□ 『그리스에서 본 일본재정의 특수성』 제일생명경제연구소, 7월8일

- 일본은 ①국채보유자 대부분이 국내투자 ②국채이율이 낮음 (이자 지불비용 억제) ③국가의 신용도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 등 그리스와 다르다고 안심하면 안 됨. 이러한 특수성은 재정리스크 발생을 막는 요인은 되겠지만 위기를 차단하는 방파제가 될 수 없음

*출처: http://group.dai-ichi-life.co.jp/dlri/hata/pdf/h_1007f.pdf

【금주의 일정】

일 자	주 요 일 정
7월 5일(월)	-
7월 6일(화)	○ 5월 경기동행지수 속보(내각부)
7월 7일(수)	○ 삼성전자, 4~6월 업적전망 발표
7월 8일(목)	○ 6월 경기Watcher 조사 발표(내각부)
	○ 5월 국제수지 발표(재무성)
	○ 5월 기계수주 발표(내각부)
	○ 5월 특정서비스 산업동태통계속보 발표(경산성)
	○ 6월 지역경제보고 발표(일본은행)
7월 9일(금)	○ 한국-일본 광역경제교류권 교류협력 MOU체결(제주) *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, 日규슈경제조사협회

* 11(일) 제22회 참의원 선거